

2026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2

ISSU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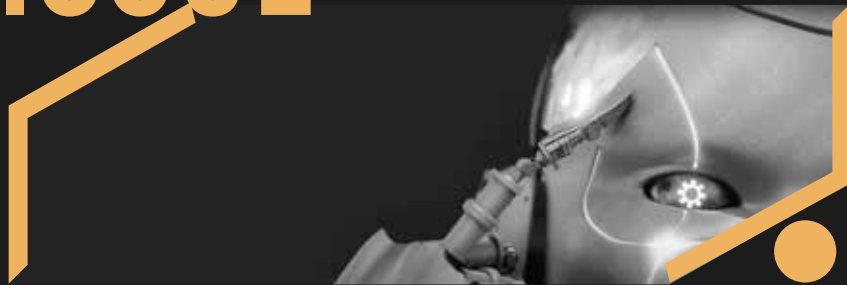
AI를 넘어 AGI로... AGI 시대가 온다

HOW
edition

ISSUE FOCUS

AI를 넘어 AGI로... AGI 시대가 온다

ISSUE



- >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 > AI가 진화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가?
- > AGI 시대, 미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란 인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거의 모든 인간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며, 그 변화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를 앞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AGI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AGI는 흥분과 혼돈이 공존하는 격변의 시대를 예고한다. AGI는 많은 영역의 변형을 약속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인간관계, 사고방식 전반을 흔들고 있다. AGI 시대로의 진입점에 서 있는 우리는 새로운 AI를 도구로 받아들여야 하는 피로감과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맛보는 희열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AI를 넘어 AGI의 시대로



AGI 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

구석기 시대의 손도끼부터 챗GPT에 이르기까지, 도구는 노동력을 절감하거나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명되어 왔음. AI 역시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연구자의 관점에서 AI 기술을 탄생 시킨 배경에는 인류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더 ‘똑똑한’ 존재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음. AI는 기후변화, 기아, 질병과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의 등장은 일자리 구조와 인간관계에까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일자리 변화:** 일자리의 구성과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 AI는 회계, 법률, 재무 등 지식과 정보 처리가 중심이 되는 분야에서 특히 빠르게 활용되고 있음. 반면 몸을 쓰고 감정과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직군이 블루칼라 직군보다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향후 1~5년 내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억 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함.
- **인간관계의 변화:** AI 에이전트(agent)를 통한 과업 수행이 일상화되면서, 직장 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줄고 개인화된 사회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소외감은, 역설적으로 AI의 정교한 감정 처리 기능에 의해 일정 부분 메워질 가능성도 있음.

제2의 인지혁명, 사고와 학습 방식의 전환



인간의 인지활동에 미칠 영향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약 7만 년 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을 언급함. 그는 인류가 인지혁명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믿음과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문명을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함.

챗GPT로 촉발된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는 인류가 생산한 거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학습하여, 세상의 지식을 연결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에서 이미 인간을 크게 앞서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사고와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2의 인지혁명’으로 볼 수 있음.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인간은 사실상 외뇌(外腦)를 얻은 것과 같음. 필요한 정보와 답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을 스스로 축적하고 기억해 문제에 적용하던 기존의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AI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

슈퍼 휴먼과 게으른 인간

AI 덕분에 초심자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 과거에는 전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만 수행할 수 있던 과업을, 이제는 AI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를 조율할 수 있다면 해낼 수 있게 되었음. 다양한 AI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여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슈퍼 휴먼(Super Human)'이 되는 일도 어렵지 않음.

그러나 AI를 한때 지나가는 기술로 여겨 활용법을 익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면 인지적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임. AI 활용 역량의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AI 시대는 '슈퍼 휴먼'과 '게으른 인간'으로 양분될 위험을 안고 있음.





AI가 진화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가?

AI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빠르게 넘어서고 있다. 이미 AI는 IQ 148을 기록했고, 소설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린다. 정보 처리 영역에서도, 창작 영역에서도 인간의 우위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그렇다면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역량에 집중해야 할까.

AI는 얼마나 똑똑한가

AI의 IQ는 148

오늘날의 AI는 명확한 규칙과 방대한 데이터로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 2025년 기준, 일부 최신 AI 모델은 IQ 테스트에서 최대 148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며 좁은 의미의 지적 능력에서는 이미 인간 평균을 크게 앞서고 있음.

소설 쓰기, 음악 작곡 및 연주, 그림 그리기, 영상 제작 등 과거에는 인간만의 분야로 여겨졌던 창작 영역에서도 AI의 발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인간의 지적 우위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음.

[그림 1] AI 모델의 IQ 테스트 결과



출처: Tracking AI, AI IQ Test Results, <https://www.trackingai.org/IQ> (조회일: 2026. 6. 12.)

인간과 AI의 차이

다중지능이론으로 본 인간 고유의 영역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인간의 지능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음. 이러한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보면 AI는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능, 시공간 지능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있지만, 대인관계 지능, 자기성찰 지능, 존재 지능 등은 여전히 인간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임.

특히 인간이 생물체로서 경험하는 ‘느낌(feeling)’은 AI가 갖기 어려운 특성임. 호기심, 의식, 욕망, 목표 설정과 같은 인간 고유의 속성은 모두 느낌에 부리를 두고 있음. AI가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에서는 인간을 앞설 수 있지만, 스스로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짐.

[표 1]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개요

지능 영역	주요 내용
언어 지능 linguistic-verbal intelligence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논리수학 지능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논리적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
시공간 지능 visual-spatial intelligence	공간과 형태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신체운동 지능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몸을 활용해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리듬과 음정, 음악적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
대인관계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자기성찰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신의 감정과 동기,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능력
자연동화 지능 naturalistic intelligence	자연환경의 변화와 생명체를 이해하는 능력
존재 지능 existential intelligence	삶과 죽음,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능력

출처: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바탕으로 재구성.



AGI 시대, 미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AI가 일상이 된 시대, 배움의 의미 역시 달라지고 있다. 한 번 익힌 지식과 기술이 평생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다. AGI 시대로의 전환은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과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묻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고, 미래세대는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

AGI 시대에 필요한 9가지 핵심 역량

AGI 시대로의 전환은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음. 이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AGI 시대에 여전히 중요한 역량

문해력: 모든 학습의 기본이자 AI 활용의 토대. 글을 정확히 읽고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AI에게 맥락을 전달하고 그 답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음.

창의력: 방대한 지식을 재조합하는 AI와 인간을 차별화하는 핵심 역량. 기존의 것을 새롭게 연결하고 전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통찰력: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 있는 판단으로 전환하는 힘. 다양한 분야를 가로질러 본질을 꿰뚫고 핵심을 도출하는 능력.

AGI 시대에서 필요한 역량

비판적 사고: AI가 생성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핵심 역량. “이 문제는 왜 중요한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AI의 답 중 무엇이 위험한가?”를 끊임없이 묻고 따져보는 능력.

AI 리터러시: AI 결과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문해력. AI의 작동 방식, 환각(hallucination)이 발생하는 원인, 데이터 편향의 영향, 프롬프트 설계 방법, AI 역량을 이해하는 능력.

변화 적응력: 빠르게 진화하는 AI 환경에서의 생존 역량.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습득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배우고 갱신하려는 적응 태도와 학습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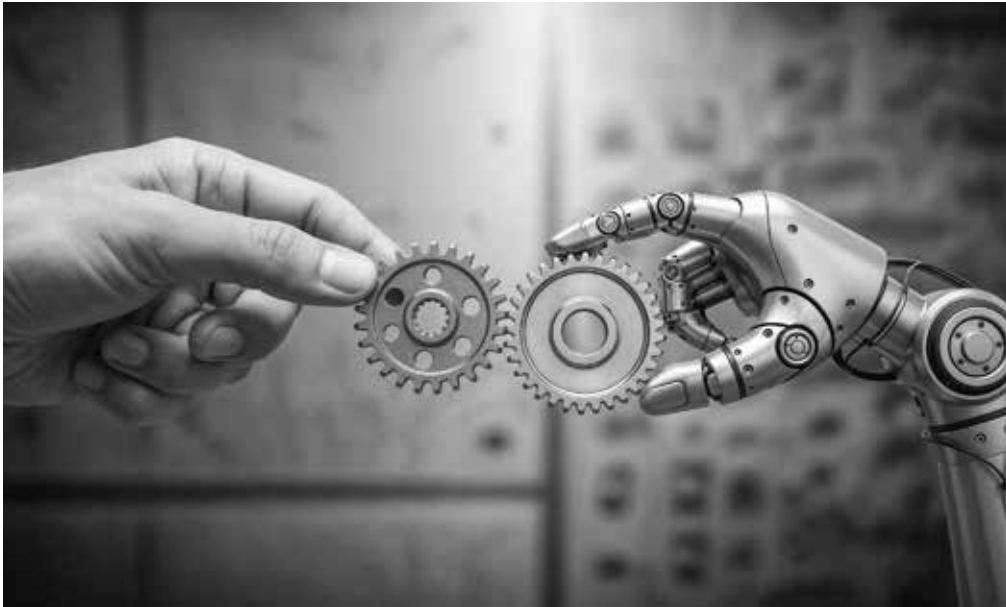
AI 시대 인간 고유의 역량

정서적 인간다움: AI가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기쁨, 슬픔, 두려움, 설렘을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강점.

관계 형성과 협업 능력: 데이터 처리로 환원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가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개인화 경험 및 체화 능력: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한 판단과 창조의 토대. 저마다 다른 삶의 맥락에서 직접 부딪히고 겪어낸 경험을 자기만의 지식과 직관으로 내면화하는 능력.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 전환



미래세대는 AI-native

미래세대는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AI-native 세대로 성장할 것임. 이에 따라 교육도 단순히 AI 활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와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와 경쟁하는 능력이 아니라 AI의 강점과 인간의 강점을 이해하고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

먼저,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고 갱신하는 구조가 필요함.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재학습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하나의 전공에 머무르기보다 '전공+AI' 형태의 융합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설계되어야 함. 전공의 깊이와 AI 활용 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학습의 공간이 교실을 넘어 실제 사회로 확장되어야 함. 인턴십, 공모전, 창업,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경험이 학습의 핵심이 되어야 함.

나아가 미래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넘어 인간다움을 기르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체육, 예술, 음악, 연극, 토론, 봉사활동 등은 공감과 협력, 성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학습 경험이며, 몸과 마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전인적 교육의 기반이 됨. AI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



지피지기(知彼知己)를 통한 AGI 시대 생존 전략: AI 활용을 넘어, AI와의 공존으로

AGI 시대는 흥분과 혼돈이 공존하는 격변의 시대이다. AI의 등장은 일자리 구조와 인간관계, 사고방식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AI 활용 역량의 격차는 곧 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진다.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간의 사고와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감정과 의미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은 대인관계 지능, 자기성찰 지능, 존재 지능 등에서 여전히 AI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AGI 시대에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도 재구성되고 있다. 문해력·창의력·통찰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비판적 사고·AI 리터러시·변화 적응력은 새롭게 요구된다. 감정에 공감하고 경험을 내면화하는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강점이다. 따라서 미래교육은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AI와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FOCUS

“AI와 인간의 공진화(共進化)를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AGI 시대에 대응하여,
AI 활용 능력과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께 갖추는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집필: 맹성현(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

기획/편집: 문이슬, 최민음(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참고문헌

- Damasio, A. (2021). 느끼고 아는 존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고현석 역; 박문호 감수). 흐름출판.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Basic Books.
- Tracking AI. (2026). *AI IQ Test Results*. <https://www.trackingai.org/IQ> (조회일: 2026. 6. 12.)
- VandeHei, J., & Allen, M. (2025. 5. 28.). *Behind the Curtain: A white-collar bloodbath*. Axios. <https://www.axios.com/2025/05/28/ai-jobs-white-collar-unemployment-anthropic>
- World Economic Forum. (2025).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5*. World Economic Forum.
- 맹성현. (2024).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 헤이박스.
- 맹성현. (2025. 10. 28.). 일터에 밀려오는 AI... 기술보다 맥락 알고 판단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028/132655539/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